

## 음성치료의 원칙

이화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심 현 섭

1) Stemple은 음성치료 행위가 과연 “예술*art*”인가 또는 “과학*science*”인가 대해 질문을 제기하면서, 음성치료는 예술과 과학이 혼합된 것이라고 했다. 즉, 음성치료를 하는 동안 환자를 상담하고 동기유발을 높여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예술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며, 음성장애의 원인과 치료에 관련된 병리학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학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한다.

2) 음성장애는 기능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질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음성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음성장애 전문의와 언어치료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3) 음성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치료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음성치료의 내용에 무엇이 포함되는가는 종합적 음성장애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결정되어야 하며 치료내용에 대해 가능한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치료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어떠한 측정치를 사용할 것인가를 미리 염두 해 두어야 하며 가능한 객관성이 확보된 측정치가 요구된다.

4) 음성치료기법을 어떻게*how* 사용하는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성치료가 왜*why*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치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5) 음성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요인이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 해야 한다.

6) 정상적 음성산출에 관한 설명을 아동의 수준에 맞는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음성문제를 인식하게 하며, 음성행동의 변화에 대한 자기 모니터링*self-monitoring*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치료사는 아동이 목표행동에 달성을 했을 경우 어떠한 보상체계*reward system*를 사용할 것인가를 미리 고려해야 한다. 아동의 경우 주의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치료세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7) 다른 말-언어장애에 비해 음성장애의 경우 치료를 언제 종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통일된 기준이 없다. Boone은 오래 전에 음성장애 치료를 종결하는 기준으로 다음 5가지 경우를 제시한다. :